

Ⅱ 원주, 협동운동으로 날개 달고 컨소시엄으로 대안 경제를 지역에서 만들다

2009 · 2010 기획공모 - 해외연수사업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결과보고서



2009 · 2010 기획공모 - 해외연수사업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결과보고서

사업명

원주, 협동운동으로 날개 달고 컨소시엄으로 대안 경제를 지역에서 만들다

· 연수팀명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팀(대표기관 : 원주한살림생협) · 연수참가인원 6명
· 연수기간 2010년 6월 8일~17일(9박 10일) · 연수지역 이탈리아(트렌토, 볼로냐)

1. 연수목적 및 목표

■ 연수개요

원주 협동조합운동 일꾼 및 (예비)사회적기업가들이 이탈리아 트렌토 및 볼로냐 지역을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협동조합 간 협동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함이다. 또한 협동의 연대성으로 인해 생산되어지는 지역에서의 부가가치 창출과 그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견학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였다. 원주의 협동운동 조직과 이와 함께하는 복지, 농민, 교육단체들은 2003년 6월에 '원주협동조합운동 협의회(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하 협동네트워크, 12개 회원단체로 구성)'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최근 2~3년 사이에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국가와 시장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는 삶의 기본적인면서도 권리적인 욕구들을 실현해 가고 있다. 즉, 원주에서는 협동운동 조직 및 지역 공동체 운동 조직, 대안 경제를 꿈꾸는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지역 내에서 컨소시엄 consortium(또는 어소시에이션 association, 컨퍼런스 conference, 네트워크 network)을 구성하여 지역의 대안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조직 안의 일꾼들도 자기 비전을 지역에서 만들고 있다. 이번 이탈리아 트렌토, 볼로냐 연수는 원주의 협동운동 일꾼들과 사회적 기업가에게 많은 상상력을 제공할 것이며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성장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원주 협동운동의 배경 및 경과

원주 지역은 1960년 중반부터 신용협동조합운동을 강원도에서 전개한 경험이 있고 이런 실험운동이 가능했던 것에는 고 지학순 주교와 고 무위당 장일순이라는 두 스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의 친환경 먹을거리 생협의 모태를 이룬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원주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원주에서는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운동이 발전하고 2003년 6월에는 생협, 신협, 복지공동체, 교육협동조합 등이 결합하여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4개 단체가 가입하여, 현재는 12개의 회원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원주의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일본의 오사카, 고베 지역의 생협들과는 10년 동안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에는 생협을 모단체로 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및 복지 단체 위탁 운영, 지역협동기업으로 분화, 예비사회적기업에 사무실 무상 제공 및 안전한 먹을거리 및 로컬푸드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인생협, 문화생협 등이 결성되었음 원주시는 최근 원주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한 상태이며, 조례 발의 후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려고 있다.

■ 연수목적

1) 협동조합 간 협동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2개 단체는 7년 간 지역 안에서 협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 먹을거리 생협을 중심으로 한 협동의 단계를 넘어서 먹을거리와 일자리 창출,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통한 지역 식품 전달 체계 확립, 의료·복지·문화 등의 사회적서비스 창출, 주거·생태·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하고 있다.
- 이탈리아의 트렌토와 볼로냐 지역은 수 백 개의 협동조합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협동조합은 업종별, 부문별, 지역별로 다양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하여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지역에서 선순환하고 있다.
- 원주의 협동 사례의 확장과 이탈리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대안 경제 운동을 모색한다.

2) 지역 사회의 기여

- 원주 협동운동 조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협동기금을 조성하여 대안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원주한살림생협은 정관에 협동기금의 조성을 2010년 총회에서 명시하여 매년 당기순이익의 5%를 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들은 다양한 협동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혜택도 있다. 이런 기금의 조성이 갖는 지역적 의미와 재생산의 구조를 연구하였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동조합의 모습은 단순히 기부나 후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구조는 재화와 서비스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 되기에 지역의 부가가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이탈리아는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B타입과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A타입이 있고, 이 둘을 혼합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원주의 협동조합들도 현재 이런 초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며 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공급받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0년 2월 말 생협법 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생활협동조합도 다양한 공산품을 취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면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공제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은 생협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다양한 협동조합의 탐방은 이런 가능성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협동 일꾼 및 사회적 기업가의 재생산 구조

- 원주에서 한 가정의 두 사람이 협동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비전을 갖추면서 의식주, 문화, 교육,

의료의 욕구를 해결하면서 오롯이 살아 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희생과 감수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피상적이지만, 우리가 방문하려고 하는 이탈리아의 트렌토와 볼로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바라보는 차이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 협동 일꾼이나 사회적 기업가가 지역에서 자기 비전을 갖고 정체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재교육과 훈련, 심과 회복 등의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은 단위 협동조합에서 해결하기에는 힘든 구조이기에 협동조합들이 공동의 비전속에서 일꾼들과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4) 협동조합과 정당, 노동조합, 대학, 지자체, 국가와의 연계성

- 한국의 협동조합은 농협으로 대표되는 단체와 신협, 생협 등 별도의 법령으로 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긴밀한 관계성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 배타성으로 인해 대중들의 재화나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것에 경험이 부족하다.
- 최근 사회적기업가 연수 과정 및 시민사회단체 대학원 과정이 대학에 개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 이탈리아 트렌토에는 트렌토 대학과 비영리조직발전연구소가 있으며, 볼로냐에는 협동조합 연구의 석학이 있다. 이런 연구 기관을 방문하여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조직체와 협동조합과의 관계를 학습하고 한국 사회의 적용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협동조합·노동조합·정당·지자체와의 관계와 연계성을 학습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2. 참가자 명단

NO.	성명	소속단체명	부서 및 직위	연수팀 내 역할
1	권누리	원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	대외협력담당	회계
2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서기
3	박준영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	연수단장 및 총괄
4	백송희	예비사회적기업 일과나눔의공동체 노나메기	교육담당	서기
5	변상훈	친환경 행복한시루봉, 원주주거복지센터	대표 및 사무국장	자료
6	이광희	원주환경운동연합 재활용사업 유한회사 다자원	총괄기획부장	촬영, 사진

3. 연수 전 활동

■ 1회차

일 자	2010년 4월 7일(수)
장 소	원주한살림생협 교육장
활동 목적	1. 이탈리아 연수에 대한 기획 회의 2. 연수 일정 및 자료 취합, 대상자 선정 등 논의 3. 선행 이탈리아 자료 시청
참석자	권누리, 김선기, 박준영, 백송희, 변상훈, 이광희, 총 6명
활동 내용	1. 최근 원주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연수를 통해 확인한다. · 사회적 기업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대안경제 영역을 형성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 원주는 그런 면에서 생활협동조합의 발달 및 협동조합운동의 전통이 있는 지역이다. · 협동조합 간 협동 및 지역사회의 기여에 대해서 이탈리아 연수를 통해서 알아본다. 2. 사단법인 한살림에서 2009년에 다녀온 볼로냐 협동조합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다. · 볼로냐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발달한 배경 및 협동조합 간 컨소시엄의 형태를 시청하다.
활동 평가	1. 이탈리아 연수를 위한 첫 기획회의로서 연수의 큰 방향을 논의함 2. 선행 연수 자료를 시청한 후, 연수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 3. 원주의 협동조합 운동이 사회적 기업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함 4. 차기 모임(4월 30일까지) 이탈리아 트렌토, 볼로냐 자료 조사하기

■ 2회차

일 자	2010년 4월 30일(금)
장 소	원주한살림생협 교육장
활동 목적	1. 연수 일정 확정 공유 2. 연수 지역에 대한 학습 진행 방법 공유 3. 연수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섭외 진행 공유
참석자	권누리, 김선기, 박준영, 백송희, 변상훈, 이광희, 총 6명
활동 내용	1. 연수 일정 확정에 따른 역할 분담을 진행한다. · 연수 일정을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기로 하다. · 우선,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트렌토 지역을 방문 후, 볼로냐 지역을 방문한다. · 총괄, 서기, 회계, 자료조사, 사진 및 촬영, 선물 준비, 음식 준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2. 이탈리아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현황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한다. · 1991년에 제정된 사회적협동조합법에 따른 A타입 및 B타입, 혼합형 형태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학습하다. · 볼로냐 지역의 협동조합에 대한 공부하다. 볼로냐 레가쿰협동조합연맹, 노숙인협동조합 라스트라다 등에 대해서 학습하다. 3. 한국의 협동조합 및 원주의 협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학습하다. · 농협, 수협, 신협 등의 기존 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과의 차이를 학습하다. · 생활협동조합 중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노인협동조합에 대해서 학습하다.
활동 평가	1. 일정 확정에 따른 참가자의 역할 분담을 확정하다. 2. 이탈리아 협동조합 법을 공부하여 한국의 상황과 다른 점을 학습하다. 3. 한국의 협동조합의 특징 및 원주의 상황에 대해서 학습하다. 4. 차기 모임부터는 매주 월요일 모여 연수 준비를 하도록 하다.

■ 3회차

일 자	2010년 5월 10일(월)
장 소	원주한살림생협 교육장
활동 목적	1. 이탈리아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한다. 2. 유럽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 3. 연수계획서를 공유하며 연수의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논의하다.
참석자	권누리, 김선기, 박준영, 백송희, 변상훈, 이광희, 총 6명
활동 내용	1.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자료를 학습하다. · 유럽의 각 나라마다 역사 발전의 발전 형태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다른 제3섹터 영역과의 관계가 상이함을 학습하다. · 이탈리아는 가족복지 중심의 운영 체계에서 1991년에 사회적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국가 중심의 사회안전망보다는 제3섹터에서의 활동에 치중함을 보이다. 2. 유럽 사회가 갖고 있는 광의의 사회적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하다. · 북유럽 중심의 복지 국가적 유형, 영국의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제3섹터로의 복지 시스템 이동, 독일의 조합 중심적 사회안전망 및 사회적 경제 영역,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법의 특징을 학습하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방정부의 관계, 법과 제도적 시스템, 사회적 합의 등의 여러 요건이 맞물려야함을 학습하다. 3. 원주의 특성인 생활협동조합의 발달에 따른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의 기여 등이 사회적 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논의하다. · 사회적 기업이 서로 연계하여 지역 내에서 다양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 및 사업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발전을 할 수 있음을 논의하다. · 이탈리아 두 도시의 협동조합 컨소시엄을 연수하여 한국적 상황 및 원주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논의하다.
활동 평가	1. 이탈리아 및 유럽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범주가 다양함을 학습하다. 2.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 중심적 법 제정에 따른 제3섹터의 영역이 활발하지 못함을 논의하다. 3. 연수 목적에 대한 재차 인식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다.

4. 연수 일정

날 짜	방문기관	세부내용
6월 8일 (화요일)	이태리로 출발	· ICN 인천 00:50 → 카타르 도하 05:05(경유) → 08:25 → 13:50 밀라노 공항 도착 → 트렌토로 이동
6월 9일 (수요일)	오전: 트렌토 시내 관광 및 휴식 : 샤르단나마을 FAMIGLIA COOPERATIVA 방문	· 오전에는 기관 방문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트렌토 시내 성당(IL DUOMO DI TRENTO) 및 박물관, 트렌토 시내 견학 · 관광 도중 트렌토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마을에서 생협 점포를 발견하여 식사를 함. 그곳은 나중에 방문한 SAIT에서 물품을 받아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었음
	~17:00 Cooperazione Trentina (트렌토 협동조합연맹) 방문	· 트렌토 연맹의 대외담당자인 flavio플라비오씨의 안내로 지하 1층에서 지상6층까지의 건물 안내를 받음. 회의장에서 트렌토연맹 현황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을 들음. 536개의 조합이 연맹에 가입해 있음. 3조의 연맹 조합의 매출액
6월 10일 (목요일)	SAIT(유통협동조합) 부대표: silvio carlin 안내	· 1970년대 이후 유통은 물론 서비스, 마케팅, 진열, 매장위치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시작. 그 이전까지는 판매 중심 · 106개의 산하조합과 370개의 COOP 매장과 연결된 판매점 운영함
	RISTO3(식당협동조합) 실무책임자: sergio vigliotti 안내	· 산하 250개의 식당 중 처음으로 문을 연 식당을 방문함 · 창고를 헐고 식당으로 개한 곳으로 노동자가 주손님임 · 식재료는 별도 물류 창고를 통해 들어오고 또한 지역 친환경 로컬시스템을 통해 받고 있음
	Val di Gresta(농업협동조합) 대표: 반달로자(여성) 안내	· 125가구가 모인 농업 중 야채 단위조합: 상위조합은 CIO · 위치가 해발 1천m 이상임. 원형극장처럼 둘러싸인 지형과 친환경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음 · 2010년 40개의 농장에서 80% 이상이 친환경 야채 생산함
6월 11일 (금요일)	115회, 트렌토 협동조합연맹 총회 참석	· 1/2단계 단위 조합장 및 컨소시엄 대표 300여명 참석 · 점심은 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뷔페(리스트3제공) · 출자금 액수에 따라 투표의 권리가 다름
	OECD LEED 트렌토센터	· 트렌토의 COOP를 연구하는 데 좋은 지리적 위치 · 트렌토의 특징은 협동조합 자본과 트렌토 지자체의 협력으로 재정자립도를 100% 유지 · 이번 연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 준 연구원 엠마씨 미팅

날 짜	방문기관	세부내용
	SAMUELE COOP SOCIAL (사무엘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인, 외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 가족 제품을 생산해 매장에서 판매, 다른 협동조합 제품도 진열해 판매 · 사전 학습을 통해 알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OECD LEED 트렌토센터를 방문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발견하여 방문함
6월 12~13일 (토~일요일)	베네치아 관광 및 휴식	· 6월 12일 오전 트렌토를 출발하여 점심 무렵 베네치아 캠핑 줄리 숙소 도착 후, 오후 베네치아 관광 중 Adriatica coop 매장 방문 중간 규모의 소비협동조합으로 볼로냐 협동조합 학습 시 공부했던 곳이라 방문하여 물품 구매함 · 6월 13일 오전 캠핑 줄리에서 휴식 오후 볼로냐로 이동 6월 13일 볼로냐 숙소에서 1박
6월 14일 (월요일)	LEGA COOP 볼로냐 지부 대외 담당 안내	· 280여개의 협동조합, 3만5천여 명의 직원, 100만 명 회원, 1천100만 유로의 매출, 볼로냐 시 40만, 볼로냐 주 전체 90만 명 ⇒ 130만 명 인구 중 100만 명이 회원 · legacoop에서 하는 서비스 ⇒ 관리 시스템 컨설팅, 기업 컨설팅, 행정 및 세무 서비스, 일에 대한 서비스, 신용 서비스, 연구소(coop의 방향) 등
	LA STRADA(노숙인 협동조합) 대표 안내	· 창립자인 '마시모'가 97년도에 PIAZZA GRANDE모델로 시작 · 노숙인을 일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식당운영, 식당 이용증서를 조합에서 발급
6월 15일 (화요일)	CONAPI 협동조합 · ALCE NERO 주식회사 대표: anna cavazzoni 안내	· 1980년 코나피 설립 이후 알체네로 흡수 · 1979년부터 역사가 시작됐고 현재 240개 회원사가 있고 1천300명의 회원, 6만5천개의 벌꿀 통, 1만9천개의 꿀통 친환경 인증, 양봉협회 3개, 이탈리아 전 지역에 225개의 협동조합
	Lisanamento(주택협동조합) 대표: sergio mantovani 안내	· 볼로냐 주 등에 2천223개 주택 보유, 주택협동조합 중 가장 오래된 협동조합, 1884년 설립 126년의 역사, 1886년 COSTA 지역을 개척하여 160가구 건설 · 9천200명의 회원, 15명의 상임위원(임기 3년), 총회 ⇒ 행정관련 위원 ⇒ 구역의 대표로 조직 구성.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이 많다. 이유는 사회적 주택이 부족하고 월세 지에 대한 정부지원 또한 부족하기 때문
6월 16~17일 (수~목요일)	한국으로 출발	· 밀라노 11:55 → 카타르 도하 18:45(경유) ⇒ 01:20 → 16:15 인천 공항 도착. 원주로 이동

5. 방문국의 사회적 기업 현황

■ 유럽 각국의 사회서비스체제 유형별 특성 중, 이탈리아 모델은 아래와 같다.

제3섹터 주도모델은 이탈리아에 해당되는데, 조합주의모델의 독일과 마찬가지로 현금이전 중심의 복지체제를 유지하여왔으며, 사회서비스 조달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은 매우 낮은 편이며, 전통적으로 종교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어온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험은 이 영역에서 제 3섹터의 역할비중을 지배적인 수준으로까지 이끌었다. 정부부문과 종교기관과의 오랜 협력적 관계는 제 3섹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부재정지출을 유지해왔지만,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낮은 정부재정지출은 시장부문으로부터 자금조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복지혼합(welfare mix) 속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전망 중, 이탈리아는 아래와 같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 제3섹터주도모델의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기업은 조합체(Co-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주식회사(Stock Company), 유한회사(Limited Company), 협동조합, 합자주식회사(Limited Share Partnership), 공제조합(Mutual-aid Association) 등의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Austrian Institute for SME Reaserch, 2007b).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률 381/1991에 의해서 별도의 법률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형태이다. 최근 2006년도에 법률 155/2006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법적 인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사회적 기업은 공동이익과 비영리에 기초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기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조직으로서 포괄적으로 이해된다(Fici, 2006).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이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정책적 전통과 종교기관과 정부와의 오랜 협력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 다양한 신사회운동조직들과 새로운 자원봉사조직들에 의해서 사회적 연대 협동조합들(Social Solidarity Co-operatives)이 운영되어왔다. 실제로 상당한 수의 사회적 기업들이 1980년대 이후에 설립된 조직들이었다(Borzaga, 2004). 지난 20여 년간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험은 각 지역마다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연합조직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정부와 사회적 기업이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을 공유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상당수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노동자를 비롯해서 자원봉사자나 이용자들 혹은 지원조직들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복합 이해 당사자 모델을 취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 일이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복합 이해 당사자 모델을 취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모델이 무척 성공적일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매우 유용한 방식이라는 점이었다.

(장원봉, 2007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역할과 전망: 유럽의 경험을 통한 교훈을 중심으로' 인용)

〈표〉 이탈리아 사회적 기업의 유형별 현황

유형별 구분	개수
1991년 381법에 의해 정의된 사회적 협동조합	4,500개 (1998)
1991년 266법에 의해 정의된 민간단체 중 일부: 순수비영리민간단체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000개
1942년 민법의 조항에 포함되는 민간단체들: 회원만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몇 백 개
1947년 법에 의한 전통적 협동조합들 일부	1,000~1,500개
자선적이고 사회적인 케어를 위한 공적제도(IPAB)의 민영화된 부분	(200명)
노동자주식소유기업	소수

출처 : Defourny, 2001

(엄형식, 2007년,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현황 - 비교와 유형화를 통한 접근'에서 인용)

6. 방문기관분석

1) Cooperazione Trentina(트렌토 협동조합연맹)

방문일자	2010년 6월 9일(수)
방문기관의 성격(주요사업)	협동조합 연맹(지원 및 조직운영)
방문목적	· 트렌토 지역의 협동조합연맹 운영 시스템 탐방 · 협동조합간의 연계 방법 탐방 · 조합과 조합간의 연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 조사
방문기관 담당자	Flavio Beozzo(Ufficio studi e intercooperazione)
홈페이지	www.cooperazionetrentina.it
주소 및 연락처	38122 Trento(Italy) Via Giovanni Segantini, 10 · Tel. +39 0461 898111 · Fax. +39 0461 985431

■ 방문내용

· 연맹의 설립배경 및 목적

1870년~1888년 사이 약 2만 4천명이 가난을 피해 트렌토 지방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에 지역 경제는 많이 힘들어졌고 이를 지켜 본 DON LORENZO GUETTI(신부)가 목화 생산자와 함께 1890년 최초의 소비자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1892년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가난과 기근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창립하게 된 것이다.

1895년에는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이 창립하였고 1899년에는 유통협동조합인 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2010년 현재는 255,000명의 조합원과 536개의 협동조합 16,000명의 협동조합 종사자와 5,066명의 협동조합 임원들이 있으며 매출액은 24억유로(3조6천억)이다.

· 각 분야 협동조합 및 연맹 현황

- ▷ 소비자(유통)협동조합: 조합원이 9만2천명이고 79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1개의 컨소시엄 (SAIT)과 5개의 서비스 학회 387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2,70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38% 정도이다.
- ▷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11만 7천명이며 이용하는 고객은 45만 명에 이른다. 46개 은행과, 1개의 연맹 Cassa Centrale(46개 은행의 연합체)과 381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2천700명의 고용인원이 있다. 자산은 한화로 130조원이다.
- ▷ 일자리,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조합원이 2만3천명이며 301개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고용인원이 6천명이다. 사회적 영역으로 일자리 1천 800개 창출과 1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가지고 있다.
- ▷ 농업분야 협동조합
- ▷ 조합원이 2만3천명이며 101개의 협동조합들로 구성되어있고 6개의 컨소시엄과 1개의 과일 및 채소 협동조합 연맹 존재 하고 있다. 항시 고용 인력이 2,550명 정도이며 가을 추수기에 외지 들어오는 노동력 6천 명 정도이다. 시장에서 팔리는 농산물의 90%가 협동조합 농산물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전량 조합에 납품하는 게 의무이다.
- ▷ 협동조합 연맹: 174명이 일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대활동 및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협동조합에 관한 감사와 인증, 협동조합 컨트롤, 행정, 법률, 세금 및 노동조합 서비스 등을 제공 하고 있다. 1만 명의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공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를 위한 연구소 설립 운영하고 있다.

· 연맹의 조직체계

1차 각각의 단위협동조합 → 각각의 단위 협동조합들이 연개해서 운영하는 2차 협동조합 컨소시엄 → 2차 협동조합의 대표들이 연맹 운영 회의에 참석하여 연맹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 기관평가

1) 특징

트렌토 연맹은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의 가치인 Persona(사람), Economia(경제적 가치), Responsabile(책임감), Solidale(연대), Operosa(근면성), Non Speculativa(비영리), Etica(윤리)를 계속적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으며, 모든 협동조합의 매출액의 3%는 협동조합 연구 등 가치적인 것에만 투자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2) 사업평가

협동조합간의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협동조합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원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어 이탈리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협동조합 정신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기관운영 평가

트렌토는 재정자립도가 100% 가능한 곳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생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엄청난 성장임에는 틀림없다. 재정자립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역에서 순환되는 돈을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순환을 가능하게 한 협동조합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트렌토 연맹이 잘 운영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한다면 각각의 개별 협동조합들의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로 협동조합을 키워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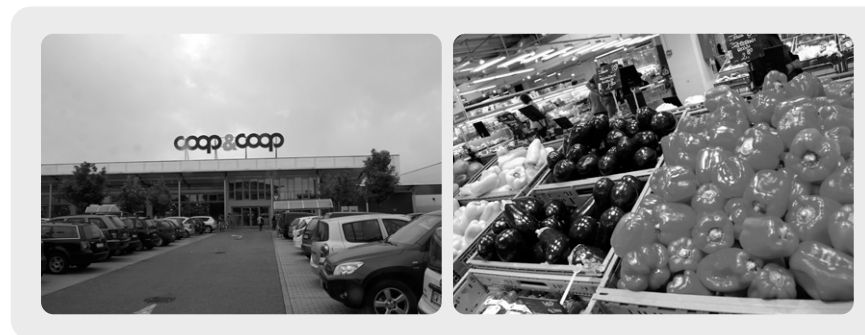
■ 시사점

1)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원주에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있다. 원주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들과 같이 지역의 경제를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하는 생각에서 과거 원주 협동조합협의회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협동네트워크는 현재 12개의 회원단체와 8개 정도의 예비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가 좀 더 긴밀하게 회원 단체들을 견인해나간다면 트렌토협동조합연맹처럼 지역의 새로운 대안 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또는 동종업체에서 고려할 점 등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경우 회원단체의 회비로 운영이 된다. 이는 트렌토 연맹과 비교해본다면 많은 한계지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트렌토의 협동조합은 매출액의 3%를 회비로 납부한다. 하지만 이번 원주에서 “사회적 기업가 날개 달아주기”를 통해 트렌토연맹을 탐방하고 돌아온 참여자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배워온 협동조합 간의 무한한 신뢰와 믿음으로 자신들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트렌토협동조합의 역사를 잘 적용한다면 원주의 대안 경제를 그려 볼만할 것 같다.



2) SAIT(트렌토지역 유통협동조합)

방문일자	2010년 6월 10일(목)
방문기관의 성격(주요사업)	유통협동조합
방문목적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의 유통 조직과 이와 연관된 지역 경제의 선 순환적 구조 파악
방문기관 담당자	Silvio Carlin
홈페이지	http://www.saittn.it
주소 및 연락처	SAIT societa cooperativa VIA Maccani 162 38121 Trento · Tel. 0461 808100 · Fax. 0461 823564

■ 방문내용

1) 설립

1899년 11월 23일 설립자인 Emanuele Lanzerotti에 의해 지역 사회의 상호 지원의 역할을 목적으로 생겨났으며 트렌토 지역의 협동조합 상호간의 공동 구매 및 공동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성장과정

1899년부터~1970년까지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였다.(무솔리니 정권하에서 협동조합은 정부의 기구로 전락)1945년~1970의 시기에는 식품 및 가공분야를 비롯한 생산 제품이 SAIT의 브랜드로 제조되고 소매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1971년 총회를 통해 현대적이고 효율화된 유통시설을 갖추고 매장과 유통하는 것과 함께 상품의 진열, 매장위치, 물류시스템, 정보 관리, 마케팅 등을 산하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1993년 사이트가 소속된 상위연맹인 트렌토협동조합연맹은 고유한 브랜드 및 독점적인 마케팅을 인정받고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맹(REGA)에 가입했다.

3) 목적

SAIT는 회원의 이익과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동조합 운동은 지역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며 조합원에 대한 정직과 정보공개 품질에 대한 약속 및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여 운영되고 있다.

4) 조직

106개의 산하조합(COOP)과 300여개의 소규모 조합 매장(FAMIGLIA COOPERTIVA)과 340개의 아울렛 및 개인 매장(GOL MARKET), 200여 개의 개인 소유의 상점 LIBERTY와 19개의 슈퍼형 매장(SUPERMERCATI TRENTINI)을 운영하고 있다. 8만 2천명의 조합원과 106개의 협동조합, 1개의 컨소시엄(SAIT), 5개의 서비스 관련 학회, 379개의 직영 매장, 1천5백 명의 고용인원, 3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SAIT의 운영 방식은 106개의 COOP의 조합장이 선출한다.

- 소비자 위원회: 조합원은 COOP의 성장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SAIT의 컨소시엄 산하 단체 브랜드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점포 및 상점 브랜드를 갖고 있다. SAIT의 회원 조직은 조합원에 대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COOP에 가입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 시설: 전문적인 유통 및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창고에 대한 전문적이고 최고의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해 관리되며 효율적으로 SAIT의 각 조합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14,000㎡의 물류 창고와 2,000㎡의 냉동 창고를 통해 1년에 2,800만개의 주문을 소화해내고 있으며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서 시스템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주일에 3번 유통하며, 주문 후 36시간 이내에 배송체계 시스템과 과일 및 채소류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4~6℃로 이동한다. 최대 배송 거리는 반경 200km까지 이다.

5) 경제적 규모: SAIT의 전체 매출은 5억 400만유로

순이익: 2009년 8천만 유로이며 50%는 COOP에 재분배, 50%는 재투자를 위한 적립. 이익금의 3%는 의무적으로 기금 조성

■ 기관평가

1) 기관특성

109개 협동조합의 대표가 SAIT의 운영을 맡을 대표를 선출하고 수익은 시설 투자와 조합에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SAIT는 협동조합 직영 매장은 물론 소규모 매장, 개인 상점과 의류를 소매점에도 물품을 납품하고 있다. 까르푸가 트렌토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던 이유일 것이다. SAIT는 물류를 단일화 해 공동 구매와 공동 판매의 협동조합적 가치 실현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공동체 구성과 효율을 극대화 하였으며 1,000여개의 매장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유통을 극대화하여 자본의 외부 유출 없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내었다.

2) 기관특성

SAIT는 물류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60만이상의 제품과 193개국에서 수입물품, 냉동 창고의 450가지 제품의 안정성을 통한 신선도 유지와 물류에서 발생하는 유통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의 현대화와 비좁은 창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3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창고 시설을 신축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제품의 입고와 출고 관리 등이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3) 기관특성

SAIT는 트렌토협동조합연맹이 생겨난 1880년의 9년 후에 생겨났다. 설립 목적은 기계 및 공동 구매의 필요성이 있는 물품의 구입을 통해 조합원의 공동구매를 촉진하고 공동판매를 통한 이익의 실현이었다. 이윤 역시 협동조합에 재분배하는 형태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 협동조합의 유통망 구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 것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통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의해 잠식되어 지역의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SAIT의 운영 방식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시사점

1)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한국은 2000년 이후 대형마트의 확대 최근 SSM의 등장으로 지역의 골목까지 유통과 소비가 장악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몰락과 지역 경제 기반의 붕괴는 생산과 유통을 대기업이 장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트렌토 지역에는 대리점과 대형마트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모든 소비 물품과 석유 및 가스등을 협동조합에서 공동 설립 운영하는 SAIT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 한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실험적 무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협동조합과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성공은 로컬 푸드 개념의 확산과 가공 시설의 확대를 통한 고용 확대,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공동체 확대를 통한 의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2) 한국 또는 동종업체에서 고려할 점 등

한국의 협동조합은 25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유기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유통이나 가공 분야는 더디게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의 유통 역시 친환경 농산물로 국한되어서는 유통 자본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확대와 지역 물품의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의식의 확산과 사업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3) Risto3 식당협동조합

방문일자	2010년 6월 10일(목)
방문기관의 성격(주요사업)	식당 협동조합
방문목적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을 배우고 모범적인 사례를 견학하여 지역고용창출, 실업의 해소 및 노동자 중심의 민주적 운영의 가능성을 본다
방문기관 담당자	Sergio Vigliotti
홈페이지	www.risto3.it
주소 및 연락처	Via del Commercio 57 38121 Trento · Tel. +39-461-825175

■ 방문내용

1) Risto3의 설립배경 및 역사

1978년에 트렌토 주정부가 학교에 대한 후원을 끊음으로 1978~79년 사이에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원 인력이 대거 해임된다. 이에 따라 CO.RI.SO(사회적 식당 협동조합)이 1979년 설립되게 된다. 1982년에는 트렌토 주의 Pergine이라는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민간조리기업 Vigalzano가 노동자 스스로가 책임과 권리를 갖는 구조의 회사로 전환하고자 CO.RI.P(Pergine 식당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두 개의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다가 1991년 1월 1일 Risto3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현황 및 운영체계

- 현황: 현재 Risto3는 트렌토 지역에 약25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약 6백만 식을 판매하고 있다. 총 직원 약 900명 중 정회원 조합원인 직원은 약 350명이다. 자산규모는 약 650만 유로(한화 약 97억 원)이고 출자금은 250만 유로(한화 약 40억 원)이며 2008년 잉여금은 약 130만 유로(한화 약 20억 원)이다.
- 운영체계: Risto3는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전부 상근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사 후 최대 5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출자금(1,600유로: 한화 약 240만원)을 납입하여 준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준회원은 협동조합과 직무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의 이수 후에는 기존의 조합원들로부터 가입승인을 받게 된다. 가입승인이 된 사원은 정식 조합원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에서는 조합원인 사원들이 모여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와 이사진을 선출한다.

3) 주요사업

Risto3는 레스토랑과 카페 운영을 중심으로 출장뷔페나 학교급식 사업 등 전반적인 식사의 제공을 하고 있다. 조직지원국에서는 각 매장 영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각 매장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물류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신선한 야채를 각 매장에 배송한다.

4) 특징

- 고용: 업무의 특징상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노동자이고 대표 또한 여성이다. 트렌토에는 동유럽 등에서 이민을 해온 이주 여성들이 많은데 Risto3에는 그들의 고용비용이 상당히 높았다. 우리가 실제로 방문했던 카페에는 3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3명 모두 동유럽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었다. Risto3는 노동자협동조합의 가치를 '일하는데 있어 똑같이 존중하는 문화'로 꼽았다. 여성, 이민자, 사회적 약자들도 조합의 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민주적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 임금의 격차는 최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의 3배를 넘지 않는다.
- 자발적 통제: 협동조합의 공공적 / 사회적 성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인증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 인증들은 소비자를 겨냥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거나 법적인 강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발적인 노력이었다.
- UNI EN ISO 9001:2008(품질경영)
- UNI EN ISO 22000(식품안전경영)
- UNI 10854(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 CEE 2092/91(유럽친환경인증)
- SA8000:2008(노동의 기본적 원리, 원칙)
- UNI EN ISO 14001:2004(환경경영)

■ 기관평가

Risto3는 대량실업의 문제를 노동자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스스로 성공적인 기업을 만든 사례이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기업의 주인으로 참여하여 서비스와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값싸고 좋은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의 좋은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알찬 기업이다. 또한 250개의 매장들의 물류시스템을 정비하여 지역 내의 신선한 농산물들을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하여 식재료의 선도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협동조합 원칙과 자발적인 자기관리체계의 철저한 고수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법적인 강제성도 없었고 매출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을 스스로의 목표들을 달성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 되었다.

■ 시사점

실업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고용의 유지를 위해 연대하여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 낸 Risto3의 창의적 방식은 협동의 가치를 보여준다. 해고된 한명의 노동자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같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연대는 문제의 해결을 쉽게 만들 수 있다. 한국 사회도 대량의 구조조정, 조기퇴직의 문제 등이 심각하며 청년의 실업률도 높은 상황인데 스스로가 가진 전문성을 지속하면서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창의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노동자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Risto3와 같은 노동자협동조합이 우리나라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도 노동자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노동자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실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례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또한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인증 방식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의 판단의 요건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인증 자체가 매출의 신장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바라는 경우도 종종 있다. 허나 그보다도 각 사회적 기업들은 자신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책임감 있게 설정하고 그것들을 달성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로 성장해 가야 하겠다.



4) Val di Gresta- 야채, 농업협동조합

방문일자	2010년 6월 10일(목)
방문기관의 성격(주요사업)	농업협동조합 농업생산
방문목적	· 이탈리아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유통과정에 이해 · 우리의 농업협동조합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 상위협동조합과의 협조나 사업의 교류 방법
방문기관 담당자	반달로자 대표(조합장)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 방문내용

1) 발데 그라스타의 성장과정

- 설립
1900년 당근과 감자 경작 생산자들의 협동조합으로 시작
1900년~1960년까지 당근과 감자 경작으로 조합을 키워 옴

· 성장과정

1960년 이후 양배추, 호박, 무 등으로 품목을 확대 시켜옴

1960년~1970년 200가구로 늘어남, 한 가구당 평균 생산량 6만 Kg~7만 Kg

현재 125 생산가구와 모인 단위조합: 한 가구당 평균 생산량 2만 Kg

생산량이 줄어든 원인: 직물이 다양화 됨, 친환경 작물이 많아져 소득은 높아졌으나 생산량은 줄어들

1984년 4개의 농장에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하여 2010년 40여개의 농장에서 80% 이상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음

2) 발데 그라스타의 현재 현황

· 현황

심벌: 무당벌레(친환경을 상징)

상위조합: CIO

대표: 반달로자(농업협동조합 중 유일한 여자대표로서 실제 개인농장을 운영하는 생산자)

환경: 해발 1천 미터의 고지대에 산을 개간하여 돌면서 쌓아 올라가는 농경지대

농업조건: 주변에 커다란 호수가 있어 생산에 유리한 자연조건

· 운영

조합원 조건: 가입 시 25유로 내고 나갈 때 돌려줌

교육: 화요일, 금요일 1시간씩 농업기술교육

종자: 4월~5월에 3개의 큰 종자은행에서 종자구입

종자를 키우는 회사로 보내 키워서 모종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분양, 모종 값은 가을에 수확 후 값은 품질관리: 생산부터 포장까지 생산자가 하여 조합에 납품

생산품질이 떨어지면 1, 2 차 경고 후 10%~20% 납품가격 하락됨

생산물 유통: 조합에서 전 생산물을 납품받아 SAIT를 통해 유통

노동력: 수확 철이 되어도 외부의 노동유입은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

지방정부의 도움: 종묘 저장고, 매장, 조합사무실 건물 짓는데 40만 유로 연 2%의 저리로 대출(60만 유로는 자부담 현재 다 상환한 상태)

조합에 적립: 총매출의 3%는 조합에 적립하고 4년 후에는 찾음. 재량에 따라 5%나 6% 일 수 있음(보통 협동조합의 3%의 조합비를 내는데 4년 후에 돌려받는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함)

3) 친환경 농산물 사업

· 친환경 농사의 성장 배경: 2007년부터 학교 급식 중 총 30%를 친환경으로 사용하도록 지방정부에 법제화

· 친환경 농산물 유통: 학교급식, 급식업자가 조합에서 매입, 3개의 급식업자가 6~7개의 초등학교에 공급, 5개의 유치원은 조합에서 직접 공급

· 친환경 농산물 관리: 씨앗에서 식탁에까지 친환경을 원칙, 친환경 종자확보를 위해 인도에서까지 구입, 씨앗에서 거름까지 친환경인지를 확인 함

■ 기관평가

1) 기관 특성 및 사업 평가

· 생산자들이 모여서 만든 전형적인 농업협동조합

· 소규모에서 축구장 40배의 농장까지 다양함

· 종자에 대한 관리나 종묘키 우기 친환경 종자확보 등 개별 생산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조합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감

2) 기관 운영 평가

· 생산자가 투표를 통해 대표가 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등 현황파악이 용이해짐

· 친환경 농사로의 전환 등 지자체의 정책이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응

■ 시사점

1) 친환경에 농업

1984년 시작한 친환경 농업의 확대, 종자나 종묘에서부터 친환경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

2) 유통망의 확보

· SAIT와 같이 유통협동조합의 있어 협동조합의 농산물 유통이 원활, 협동조합간의 공조체제가 잘 되어 있어 서로 발전할 수 있음

· 협동조합간의 공조의 신뢰는 자체 자립을 전제로 하며 자체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함

3) 자발적 농업협동조합 운영

· 농협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과 달리 비교적 소규모의 협동조합이라도 독립적 운영이 가능

· 독립적으로 운영할지라도 협동조합간의 연대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음

·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특성에 맞는 운영방식을 가질 수 있고 납품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 생산자들의 안정된 농업환경이 이루어짐

· 한국의 농협은 너무 거대화되어 농민들의 조합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협 중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발전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은 한국적 상황과 비슷하기에 유통에 대한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곳도 고령화 문제로 인해 새로운 젊은 층이 농사를 짓는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대표가 말함. 농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음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함

5) Cooperazione Trentina(트렌토 협동조합연맹 총회)

방문일자	2010년 6월 11일(금)
방문기관의 성격(주요사업)	협동조합 연맹 총회
방문목적	· 트렌토협동조합연맹의 정기 총회를 관람함 · 연맹의 총회 참석자들의 총회 참여 형태를 관찰함
방문기관 담당자	Flavio Beozzo(Ufficio studi e intercooperazione)
홈페이지	www.cooperazionetrentina.it
주소 및 연락처	38122 Trento(Italy) Via Giovanni Segantini, 10 · Tel. +39 0461 898111 · Fax. +39 0461 985431

■ 방문내용

1)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 총회 간략 정리

총회는 연맹 건물의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2층까지 포함해서 약 3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다양한 협동조합의 대표들과 실무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총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소모임을 만들어 하고 있는 여자 중학생들이 6명이 총회를 관람하며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연맹의 대표는 Diego Schelfi라는 분이었는데, 머리가 벗겨지고 덩치가 큰 온화한 분위기를 보이는 분이였다. 약 30분 정도 인사말을 하는데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현재의 유럽의 경제 위축 상황 속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준비해 온 글을 읽으며 주장하였다. 협동조합의 연합의 중요성, 조합의 민주주의, 믿음의 문제, 정보의 역할,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새로운 복지협동조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2012년은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다. 새롭게 하나 되어 움직이며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이 더욱 연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트렌토 인구가 약 50만인데, 그 중에 255,000명이 조합원이다. 536개의 조합이 연맹에 참여하고 있으며, 5,066명이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

농업과 관계된 협동조합은 23,000명이고 101개의 조합이 있으며, 7개의 2차 연합회가 있으며 직원은 2,550명이다. 유통소비와 관계된 협동조합은, 92,000명이고 387개의 점포와 79개의 조합과 1개의 2차 연합회가 있으며 2,700명의 직원이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117,000명이 조합원이고, 46개의 단위 신탁과 381개의 지점이 있으며 1개의 중앙신탁이 있다. 2009년의 전체 협동조합의 매출액은 24억유로(한화 3조 6천억 원)로 2008년보다 7% 하락하였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포도 및 과일의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위험 요소이다. 또한 신탁이 다른 은행들과 경쟁 체제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자율이 시중 은행과 비교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젊은 층의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없으나, 트렌토 협동조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신탁 및 유통소비, 정보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했다. 약 350명 정도.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었다. 연맹 차원에서 550,000유로(한화 8억2천만 원)를 국제 구호(아이티 지진 등)에 사용하다.

2) 트렌토 경영학과 교수 강의- intervartoi adrea leavadi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또는 유전자 DNA는 일반 기업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월한 결과를 보여준다. 1934년 뉴딜정책(루스벨트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경제 상황과 비슷하다. 균형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들을 하고 있다. 160년 협동조합의 역사는 2번의 큰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교황은 작년에 협동조합에 대한 언급을 통해 가톨릭의 이사회도 조합이 가진 특징을 배워야한다고 언급했다. 연대성과 주인 성을 강조. 노벨상을 받았던 다른 박사가 만족은 어떻게 생기는가를 말했다. 만족은 공동체에서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의 만족이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협동조합이 근본적인 인간의 만족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말하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조합원 구성원들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연대하라. 즉 협동조합 간의 연대가 중요함을 이야기하다.

3) 트렌토 신탁 연맹 대표- alessandro azzi

우리는 패러독스한 시기에 살고 있다. 글로벌과 지역주의가 같이 공존한다. 점점 지역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위험과 크기이다. 작은 은행은 위험이 높다. 반대로 큰 은행은 위험이 낮다. 나는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트렌토 신탁은 잘해가고 있다.

4) 유럽의회 위원- herbert dorfrann

농협, 신탁 분야 위원임.

5) 트렌토 시장- loreazo dellai

앞으로의 미래는 어둡고 어렵고 길 것이다. 유럽은 지금 힘들고, 두려워하고 이 사이클 안에서 언젠가는 결론이 지어질 것이다. 이탈리아도 유럽 안에 있기에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트렌토도 여기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과 부정의 숙제가 주어졌다. 우리는 새롭게 힘내야하고, 저축하고 투자해야 하고, 인터내셔널 해야 한다. 트렌토 시장은 일반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했고, 협동조합도 여기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 기관평가

- 전체적으로 총회에 참석한 단위 조합의 대표나 2차 연합 대표들의 참여 분위기가 진지했다. 우리처럼 형식적인 총회가 아닌 자신들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사점을 던져주고 했다.
- 특히 유럽의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 및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중요성 및 지역주의에 대한 강조는 원칙적이면서도 절실했다.

■ 시사점

- 연맹에 소속된 전체 조합의 총매출액이 우리 금액으로 3조원이 넘는 규모의 협동조합을 한국의 생협들이 바로 벤치마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 등을 우리의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6) Legacoop Bologna 연맹

방문일자	2010년 6월 14일(월)
방문기관의 성격(주요사업)	볼로냐의 협동조합연맹
방문목적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의 수도' 라고 불리는 볼로냐의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개괄적인 그림을 보고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기여와 협동운동의 가능성을 본다.
방문기관 담당자	
홈페이지	www.legacoop.bologna.it
주소 및 연락처	Viale Aldo Moro 16 40127 Bologna · Tel. +39-051-509-828

■ 방문내용

1) 볼로냐 협동운동의 역사

1854년 토리노에서 이탈리아 최초의 협동조합이 설립이 된다. 6년 후 볼로냐에도 첫 협동조합이 설립되는데 최초의 협동조합은 노동자 협동조합이었다. 볼로냐 지역은 사회주의자들의 의해 협동조합운동이 발전하게 되는데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3,600개의 소비자협동조합과 2,700개의 생산 및 노동자 협동조합이 생겨나게 된다. 하지만 전쟁과 파시스트 정부에 의해 탄압을 받게 되어 레지스탕스(반파시즘 저항운동)를 지원하며 명맥만 유지하다가 전후에 다시 볼로냐 재건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1947년에 이탈리아 헌법 45조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이 삽입되나 55년 들어선 우파정부에 의해 탄압받다가 60년대 이후로 협동조합이 볼로냐의 사회/경제의 큰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현황 및 운영체계

- 현황: 볼로냐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도'로 불릴 만큼 볼로냐 협동조합은 볼로냐시민의 대다수인 10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1/10인 3만 5천명이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다. 지역 내 상위 50대 기업에 15개가 협동조합이다. 전체 협동조합은 약 300여개이며 연간 32억 유로(한화 약 4조 8,0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볼로냐는 유럽의 5대 경제 도시 중에 하나로 지역 내 일인당 생산량이 28,297.37유로(한화 약 4,200만원)이고 실업률은 3.1%로 매우 낮다. 인구 100명당 회사의 수가 10.34개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들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운영체계: 각 협동조합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총회가 3년에 한 번씩 열린다. 그 자리에서 30~8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 회의에서 의장이 선출된다. 대의원 중에 이사회가 결성이 되고 이사회에서는 중요 사안들에 대한 의결이 진행된다. 또한 실무책임자들로 구성이 된 회의가 수시로 열려 Legacoop의 전반적인 사업전략 및 방향들이 정해진다. 대의원 중에서 감사위원회에 속하는 사람도 선출이 되는데 이들은 사업의 전반적인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견의 충고를 조율하고 정관 등의 법적인 해석들은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3) 주요사업

Legacoop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새로운 조합의 설립을 장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협동조합 사업의 아이

템들을 제공하고 법적인 설립요건들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모든 협동조합들이 이익의 3%를 협동기금으로 적립하는데 그 기금의 관리를 Legacoop에서 관리를 하며 그 기금은 새로운 협동조합 또는 자금이 필요한 협동조합들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금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어린이 교육도 실시) Legacoop은 자체적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문화: 극장, 멀티미디어 사업 등
- 경제: 협동조합을 경제적인 면에서 강화할 수 있는 연구,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차이에 관한 연구 등
- 건설 및 도시계획: 건설협동조합들의 도시계획 전략 수립
- 사회정치: 법적, 정치적인 압력의 행사 / 정책의 제안 등
- 국제교류: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참여

■ 기관평가

Legacoop은 지역협동조합에 대한 통계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명의 전임자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경영 지표들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러한 통계와 연구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성장의 전략들을 세워감으로서 실증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었다. 그러한 자료들이 때로는 지방자치 단체와의 정책 조율을 돕는 자료로 쓰이기도 하고 지역 대학들과 연계한 연구들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한 실제적인 경영학적 기술들이 축적되면서 각 조합들에 대한 경영진단과 컨설팅 등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조합들의 경영상의 어려움들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 시사점

Legacoop의 사례는 한국의 개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보증, 통계조사연구 등의 사업들을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들의 연대를 통해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주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들이 몇 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단체들의 기금형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가 가장 크다. Legacoop과 같이 이익의 3%나 매출의 3%를 협동기금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여 기금을 모아 대출 보증, 통계연구 등에 사용한다면 개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7) 라 스트라다 노숙인 협동조합(LA STRADA)

방문일자	2010년 6월 14일(월)
방문기관의 성격(주요사업)	노숙자 협동조합
방문목적	한국의 노숙인 및 부랑인에 대한 자립 기회 확대와 공동체의 운영 형태 비교
방문기관 담당자	Roberto Finelli
홈페이지	http://www.cooplastrada.it
주소 및 연락처	Via A. di Vincenzo, 26/F 40129 Bologna(BO) Italia · Tel. 051 372223 · Fax. 051 372223

■ 방문내용

1) 설립

1997년 창립자인 masimo가 piazza grande 모텔로 시작. 노숙자 보호소에 대한 협동조합적 관리 시스템 도입을 목적으로 시도 되었으며 노숙자 고용의 연속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노숙자 보호 서비스 위탁을 통해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자립 목표로 출범 하였다.

2) 목표

노숙자의 사회적 불평등과 고용 기회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 통합형 정책, 이민자 노숙인 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구성원의 주거문제, 고용 및 사회적 권리를 얻기 위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운영 및 구성

- 37명의 위원이 존재하며 1인 1표제로 운영, 7명의 이사가 있으며 이사 중 1인이 대표, 3년이 임기이며 2회 연임규정을 두고 있음
- 1년에 2회 정기총회를 개최함
- 14개의 사회협동조합(SIC)인 카트리치(카리타스)의 구성 협동조합
- 시에서 파견된 사회복지사가 2인이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 법률에 의해 고용되어 일하는 회원 24직원 8로 구성되어 있으나 반면 현재는 3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6~8개월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19명~34명이 근무함

4) 예산

- 수입과 지출이 같은 형태:
이윤은 30%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REGA), 30%는 적립, 30%는 배당을 하고 있음
- 이윤의 원칙: 협동조합은 일의 주인이지 돈의 주인이 아니다.

- 수입의 형태: 지자체가 임금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음
임금 등급(1~10)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며 450유로~1,400유로를 받고 있음
- 업무의 형태: 노숙자 쉼터, 무료급식소, 공원청소,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볼로냐 시에서 지불하고 있음

5) 업무의 종류 및 형태

- 노숙자 쉼터 접수 상담: 노숙자의 상태 확인 마약, 알코올 중독 등을 파악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건강 문제, 심리적 문제, 여성과 남성, 노인과 청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위험에 처한 노숙자에 대한 문제점 해결
- 쉼터, 무료급식소의 권한 부여: 쉼터 운영과 무료급식소에서 근무하며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여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직접 선택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능력과 한계의 구분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숙에 돌아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며 동료 노숙인 조직
- 통합 작업: 협동조합의 사무실 청소, 공원 화장실 청소 등을 통해 직업이 있는 사람임을 자각하고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통합형 일자리를 제공
시간당 3~4유로의 임금을 지급받음 월 평균 450~500유로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중 50유로는 미래를 위해 적립

6)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성과

- 고용의 연속성 보장을 통한 불안 해소와 삶의 중요성 인식, 자존감 회복
- 약속과 책임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 잠재된 능력의 발견과 대인관계 복원, 개인의 발전을 통한 사회통합
- 자율 및 공감근로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위기의 순간에 배제되지 않는다는 확신과 일의 선택권 부여
- 모텔의 창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와 평등한 대우, 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합원 모임 및 이사회 구성
- 프로젝트로 작업: 사업 기획을 통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꾀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교육 및 취업 알선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협동조합, 협회,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 기관평가

1) 기관특성

- 기관이나 후원자에 의해 조직되지 않고 노숙자 스스로가 협동조합 설립
- 노숙자였던 조합원이 노숙자 쉼터, 무료급식소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자체로부터 지급

- LA STRADA와 볼로냐 시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통합과 자립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사업을 진행

2) 사업평가

- 일반 노동자 최저임금의 절반의 낮은 임금 체계의 극복이 필요
- 기관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자율적 해결 방안을 시도하고 문제를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폭넓게 사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준비는 높은 평가
- 지자체에 노동시간 및 임금의 제한은 문제이며 특히 볼로냐 시가 대주주인 '헤라'를 통해 청소 업무를 LA STRADA를 비롯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재 위탁을 하는 것은 문제임
- 노숙자에 대한 보호 차원을 넘어선 적극적 조직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질적 자립기회 부여는 높은 평가

3) 기관운영 평가 등

- 지자체와 협동조합, 카리타스를 통한 지속성 확보는 미래의 발전과 노숙자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좋은 예임
- 지자체 공무원의 직접 업무 분담으로 노숙자 문제를 현장에서 체득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은 좋은 예임
- 노숙자를 위한 쉼터 및 무료급식소 활동을 통해 노숙자의 자립의식 고취 및 조직화 사업은 좋은 예임

■ 시사점

1) 한국의 적용 가능성

한국의 노숙자 문제 해결은 자립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단체 역시 노숙자를 직접 조직하고 자립의 의지 고취 목적보다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노숙자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의 노숙자 쉼터에 대한 노숙인의 참여를 높이고 자치형태의 구조로 바뀌어가야 한다.

주거문제나 한시적 지원을 넘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노숙, 부랑인 관련 사회복지사의 시각이 전환되고 주체로 내세울 수 있는 역량강화,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와 현실에서의 참여를 통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한국 또는 동종업체에서 고려할 점 등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노숙자의 경우 일시적 노숙자가 많았으나 점차 노숙자 및 부랑인이 고착화 되고 있으며, 이의 원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문제가 있다. 약물 치료나 수용의 형태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동료상담, 체험 홈 운영, 사업 마인드 전수 등 보호 차원을 넘어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과 운영 주체를 근본적으로 재단과 기관을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이 필요하다.

8) CONAPI-ALCE NERO(코나피협동조합-알체네로 주식회사)

방문일자	2010년 6월 15일(화)
방문기관의 성격(주요사업)	벌꿀가공협동조합 유통 주식회사
방문목적	· 생산자, 가공생산자와의 연계 방식 및 실태파악 · 판매유통관련 실태 파악 · 협동조합에서의 공동판매를 위해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시사점 · 협동조합형 주식회사의 운영실태 조사
방문기관 담당자	Anna Cavazzoni
홈페이지	www.conapi.it
주소 및 연락처	Via Idice, 299 40050 Monterenzio-BO-Italia

■ 방문내용

1) 코나피의 성장과정

코나피는 양봉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생산된 꿀을 선별 가공 판매하는 협동조합이다. 1979년 시작된 양봉 협동조합은 현재 1천300명의 조합원과 6만 5천개의 벌꿀 통, 1만 9천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는 3개의 양봉협회와 225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1980년 코나피를 설립하고 현재는 알체네로(파스타 생산 협동조합)을 흡수하여 코나피는 협동조합, 알체네로는 주식회사(2000년 협동조합이 연합하면서 알체네로는 주식회사로 변모했고 코나피가 지분의 51%를 유지함)로 변경했으며 알체네로를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다. 코나피는 생산자 조합원, 코나피(가공), 알체네로(유통)로 각각의 조합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끌어나가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코나피에서 생산되는 꿀은 많은 양이 소비자협동조합 매장으로 주로 나가는데 이는 코나피가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안정적인 매출과 공급을 책임져줄 수 있는 유통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조직구성과 운영

13명의 상임위원이 조직운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13명중 4명은 알체 네로 소속의 의원이고 나머지는 코나피와 관련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활동내용

- 생산자 협동조합들은 꿀을 생산하여 코나피에 납품한다.
생산자는 이익금의 2%를 코나피에 입금 → 운영, 유지, 상호부조 등에 활용함
- 코나피는 입고된 꿀들을 가공 포장한다.
매년 잉여 이익금으로 10~20만유로가 발생하는데 이는 각 조합들로 배분하지 않고 코나피에 남겨둔다 장기적 목적투자 성격의 자금
- 알체네로는 가공된 꿀의 유통 판매를 담당한다.

4) 운영방법

코나피의 9명 위원이 알체네로의 신규회원가입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이미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의 세력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운영구조는 아니다. 알체네로 소속의 9명의 위원과, 양봉협동조합에서 4명의 위원 모두 13명이 위원이 운영에 있어서의 의견들을 나누고 결정한다. 주식회사인 알체네로의 최대주주는 코나피이며(주식의 51% 보유) 이들은 알체네로가 성장하면 할수록 코나피가 갖고 있는 주식보유 비율은 줄어들겠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성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운영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묵묵 거는 한국의 주식회사의 성격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 기관평가

1) 기관특성

생산자 협동조합들로 하여금 꿀을 납품받아 가공하는 코나피는 주식회사인 알체네로를 통해 꿀을 유통시킨다. 알체네로를 이용하여 꿀 외에도 파스타, 쌀, 과자, 커피, 음료 등 여러 생산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생산품들을 알체네로라는 브랜드 명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판매를 위한 협동조합간의 또 다른 협력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탈리아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곡물이나 물건이라도 공정무역을 통하여 코나피의 이념인 깨끗함(제품&생산과정- 세금 등 법적문제와 미성년 고용 금지, 성희롱 없는 직장 등 모든 면에 있어 깨끗함을 추구), 생산자에게 정당한 지불 등을 하고 있다.

2) 사업평가

코나피가 유통망이 없어서 힘들 때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하여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멈추지 않고 파스타 생산 협동조합인 알체네로를 흡수해 주식회사를 설립 자신들의 유통 주식회사를 만들고 이제는 일본시장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볼 때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년 매출액은 3천 500만 유로로 이중 잉여금 중 10~20만유로는 코나피가 적립한다는 것을 볼 때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볼 수 있다.

3) 기관운영 평가 등

새로운 생산조직을 받아들일 때는 코나피의 9명의 위원이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구조에 있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만장일치제를 고수하고 있어 많은 토론들과 여러 가지 경우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 시사점

1)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이미 한국의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운영되어 지고 있음, 다만 규모의 면에서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규모는 이탈리아에 비해 많이 작는데 하는 일은 비슷하게 간다면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하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위해서는 협동조합간의 연대에 있어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2) 한국 또는 동종업체에서 고려할 점 등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생산조합 사이에 존재하는 가공협동조합과 유통주식회사 이들의 관계는 서로 좀 더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서로 연대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좀 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잡하기 위해 유기농야채 시장 진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이미 유기농 시장에 진입해서 지역에서 선점하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과는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큰 차이는 규모면에서 한국이 비교될 수밖에 없이 작고 영세해 보인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들을 자신들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해 주는 곳으로 인식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키워내야 할 조합으로 생산자 조합들이 인식을 전환해서 규모의 경제들을 시작할 때 한국에서의 새로운 대안 경제들이 시작 될 것으로 생각된다.



9) 리사나멘토(Risanamento)- 주택협동조합

방문일자	2010년 6월 15일(화)
방문기관의 성격(주요사업)	주택건설임대- 건축 및 리모델링 후 임대
방문목적	·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과 운영과정 탐방 · 주거협동조합으로서 주거복지와의 사업연대 현황 · 지방정부와의 공조방식 · 타 협동조합과의 협동방식
방문기관 담당자	Sergio Mantnvani(Presidente)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Via Farina, 24-40124 Bologna · Tel. 051-224692, 226443 · Fax. 051-222240

■ 방문내용

1) 리사나멘토의 성장과정

- ▷ 사회적 배경: 중산층이하의 사람들이 집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 목적
 - 중산층이하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택보급
 - 1884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협동조합
 - 서민들에게 안정된 집을 보급하기 위해 부르주아계급에서 출자
 - 1964년~1984년까지 시에서 20년 땅을 무상지원 받아 사업 시작
- ▷ 성장과정
 - 1864~1884년: 무상으로 토지 지원 받아 건축시작 20년씩 성장
 - 1922년~1942년: 파시즘에 의해 사업 중단, 다른 건축협동조합은 파시즘에 의해 흡수 되었으나 리사나멘토는 독립적으로 존재(대표가 무솔리니의 친구)

2) 조직구성과 운영

- ▷ 조직구성: 총회- 행정관련 위원회(15명: 구역대표자 중 선출)- 구역 대표자(160가구당 1인)
15명의 상임위원이 운영(대표 1인 부대표 1인) 임기 3년, 조합원수- 9200명
- ▷ 운영
 - 각 부분 전문인을 두어 운영
 - 행정담당 1인: 5명의 직원과 행정관련 운영
 - 기술담당: 스튜디오, 테크닉적인 모든 부분 담당
 - 감리 2인

3) 활동내용

- ▷ 건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해서 임대
 - 건축원칙: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조합원들의 편히 살 수 있게 에너지소비가 적은 주택(최근 14개의 아파트 에너지등급 A등급) 유지비를 최소화 할 수 있게 건축(원자력을 사용하지 않아 전기료가 비싼 이탈리아 사정 고려 태양광을 결합)
 - 난방의 경우 전기료가 비싸 다른 방식의 난방을 사용, 시의 주택제한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 5층인 경우가 많음, 친환경적인 건축 지향
- ▷ 관리유지
 - 매출 : 1년 10,000,000 유로
 - 평균월세 300유로 (보편적 시장가격 800유로)
 - 1년 80가구 보급
 - 현재 2225명의 월세자 관리
 - 월세수입 700만 유로- 지출 600만 유로 = 100만유로 적립
 - 2003년부터 10년 마다 5%~7%의 월세 인상. 10년 주기임
- ▷ 재건축 사업
 - 시기가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음 새로 짓는 것보다 재건축이 더 어려움이 많음
 - 1900년~1970 년에 건축한 아파트가 노후 및 에너지 소비 많음
 - 외부단열을 증시하는 재건축
창문, 난방시스템 등 교체
 -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리모델링
- ▷ 결과물에 대한 보전

4) 운영방법

- ▷ 임대조건
 - 100% 조합원에게 임대
 - 조합가입순서에 따라 집이 배당되어짐
 - 본인 사망 시 가족이 승계(조합원 자격)
 - 볼로냐 주에서의 무주택자(다른 주 주택소유 가능)
- ▷ 조합원 가입조건
 - 이태리인과 이태리 시민권자
 - 출자금 25,82 유로, 등록세금 277유로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 시 돌려줌
- ▷ 지방정부와의 공조
 - 지방정부에서 300의 땅을 제공
 - 에밀리아로마냐 주에서 지원하는 법 제정
 - 저소득층에 집을 지어주는 소셜 하우스가 지방정부의 사정으로 20년간 실행이 안 됨

▷ 사회취약계층의 서비스

- 젊은부부, 노인, 쫓겨난 사람, 장애인들에게 2가구씩 선발해서 순서와 관계없이 집 제공
- 사회취약계층도 조합원에 가입하는 조건

5) 주택현장방문

▷ 주택방문 모니터링

- 깨끗하고 모던한 건물 외관과 넓고 장애인을 고려한 주차시설
- 30cm가 넘는 건물 외벽으로 인한 단열
- 온돌시스템, 화장실의 라디에이터 등 난방에 신경을 쓴 시공
- 3인 기준 한국으로 볼 때 24평 규모의 내부 침실, 거실 외에 방 2개가 더 있고 창고가 따로 있음
- 내부 공간활 용을 위해 화장실을 미닫이문으로 설계
- 2중 시스템 창호, 창문과 창문사이에 작은 꽃병을 놓을 공간 있음, 두꺼운 벽 시공으로 가능해진 공간
- 공동난방으로 난방비 절감시공

■ 기관평가

1) 사업 평가

- 주택보급사업의 특성, 땅과 자본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
-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사업능력 우수함
- 전문성 확보:
 - 120년의 조합의 역사 속에서 시공과 경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 조합의 이상과 사업에 동의하는 전문 인력의 포진이 리사나멘토의 신뢰도를 높임
- 사회에서의 역할:
 - 2,225가구의 주택이 보급된 조합원 가구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보급을 받았고 계속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보급이 이뤄지고 있어 볼로냐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

2) 성공의 원인

- 처음 조합을 만들 때의 원칙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운영
 - (첫 조합가입 때 출자금 5리라 주화를 기념으로 나눠줌, 사무실안에 첫 임대건물의 모형도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설명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긍심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옴)
- 협동조합운동이 발달한 볼로냐는 협동조합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 높음
- 주거 안정화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동과 연대의 방식의 장점을 살린 주택사업
- 구역별로 대표자가 선임하고 상임위원을 그 중에서 뽑는 민주적인 운영방식
- 주택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는 시공에 대한 노력

3) 사업전망

- 주택보급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가입하는 조합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운영상의 전망은 확보되어 있음(전체 9,200가구 임대 2,225가구)
- 난관: 사유지 땅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짐, 재건축건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건축보다 시공의 어려움이 있음

■ 시사점

1) 주택보급방식

▷ 협동조합방식

- 수혜자와 보급자로서가 아닌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있음(권리와 책임)
- 재산가치보다는 주거로서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
- 임대주택이지만 조합원으로서의 주인의식 갖고 살 수 있음
 - 특별한 이유(시외 이사 혹은 사망)가 없는 한 평생 살집으로 주거 안정
- 각 구역별로 대표자를 선출함으로 조합원의 의견이 운영에 반영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공에 대한 원칙준수

▷ 주택의 공공성

- 지방정부와의 공조 속에서 사업을 풀어나감
 - 지방정부의 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냄
- 사회적 연대성
 - 취약계층에 대한 꾸준한 주택보급과 장애인을 고려한 시공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배려

2) 협동조합 분위기

▷ 상임위원들

- 조합에 대한 열정과 자긍심
- 120년 조합의 역사 속에서 처음 리사나멘토 출범 때의 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엿보임
- 전문성, 사람을 중심으로 놓는 시공방식에 대한 노력

▷ 방문에서의 분위기

- 상임위원 중 절반정도의 분들이 만남에 참여해서 리사나멘토에 대해 설명
- 조합 방문한 우리 연수팀에 우호적인 태도

7. 연수 일지

1) 2010년 6월 9일(수요일) 오후 2시~5시

■ 방문기관

Cooperazione Trentina(트론토 협동조합연맹)

■ 내용

1) 6월 9일 트론토 협동조합 연맹 방문

1층까지 마중 나온 교육담당 플라비오씨의 첫 만남. 큰 키에 큰 덩치만큼 넉넉한 미소를 갖춘 분이시다. 사전 정보가 약했던 트론토의 첫 방문지, 더군다나 연맹이라니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할까 긴장이 된다. 연맹 6층에 위치한 회의실 들어서니 음료, 리플렛, 피피티 자료 등이 방문한 우리 숫자만큼 자리에 놓여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태리 말이지만 열심히 들어다 본다. 리플렛에는 우리를 환영한다는 말이 쓰여 있어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 든다. 친절과 배려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사이에 긴장을 풀어준다.

2) 트론토 연맹에 대한 브리핑

트론토 연맹의 역사와 조합의 현황에 대해 열심히 얘기를 해주신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춘 트론토 연맹의 모든 것을 단 두시간만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트론토 협동조합으로 가는 문을 발견했 다랄까? 플라비오씨가 가장 진지하게 해주어 말씀해준 부분은 조합원 수가 많고 매출이 늘어났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다. 100년이 넘도록 트론토 연맹을 발전시킨 힘에 관해서였다. Persona(사람) Economia(경제적 가치) Responsabile(책임감) Solidale(연대) Operosa(근면성) Non Speculativa(비영리) Etica(윤리), 이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한 트론토 협동조합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을 것이라는 게 요지인 듯하다. 플라비오씨는 학교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을 하시고 지금은 연맹에서 교육담당을 하신다고 하셨다. 협동조합 교육에 관해서 학교교육이 이뤄진다는 것이 놀랍다. 자본주의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경제영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라는 세대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은 중요한 일일 터였다.

3) 협동조합건물, 이모저모

방문 기관 내용 정리, 15일 연수 일정 점검

■ 소감

트론토의 첫 느낌은 중세의 거리를 걷는 듯 옛 향기를 그대로 간직한 트론토였지만 낯지 않은 싱그러움이 느껴진다. 일정이 불투명했던 트론토! 그만큼 사전지식이 부족했다. 만나서 부딪쳐야 정체가 보일 것 같은 막막함과 첫 만남이 기대되는 설렘을 안고 트론토 연맹 건물로 걸었다. “Visita Delegazione Coreana” 우리를 위해 준비한 안내지에 인쇄된 글! 그리고 트론토 연맹 안내 문건. 산타할아버지처럼 마음 좋아 보이는 국제교육담당 플라비오씨의 친절한 안내. 첫 방문으로 긴장해 있던 마음이 풀어졌다.

2) 2010년 6월 10일(목요일) 오전 9시~11시

■ 방문기관

SAIT(유통협동조합)

■ 내용

한살림도 19개 지역한살림 중 18개 지역이 참여해서 공동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살림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협동조합적 방식이다. 사이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모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일단, 사이트 모든 공산품을 다 취급하고 심지어는 가스, 주유까지도 취급을 한다. 그러나 한살림은 친환경생활제 정도까지만 확대되어 있다. 부대표의 설명을 듣고 난후, 직접 본 물류 창고의 규모는 상상이었다. 물품의 입고와 발주, 다시 지역의 매장이나 생협으로 가는 방식도 한살림과는 달랐다. 1899년 생활하는 데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창립한 사이트는 1970년대까지 매입과 유통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1970년대 이후 유통은 물론 서비스, 마케팅, 진열, 매장위치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시작 → 2개의 축: 유통에 필요한 부분과 서비스(컨설팅과 마케팅, 판매전략, 정보시스템,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정보)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에는 1970년의 이탈리아 경제 상황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의 변화가 있어서 였다고 한다. 즉, 소비자들이 한 곳에서 여러 품목의 소비를 원해서였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도 매우 큰 물류센터가 포화상태여서 인근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다. 소비자협동조합과 생산자협동조합이 함께 만든 유통협동조합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이윤을 다시 회원 조합에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큰 물류센터를 유지한다는 것에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다.

■ 소감

생산자조합과 소비자조합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유통 협동조합 하지만 현재는 어느 생산협동조합이나 소비협동조합보다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물류의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1899년 시작은 단순했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얼마나 큰 것을 만들어 냈는지 느껴지는 곳이다.

3) 2010년 6월 10일(목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

■ 방문기관

RISTO3(식당협동조합)

■ 내용

지역 내 250개 Risto3 매장 중에 가장 처음 생긴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옛날 공장의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인수하여 식당으로 리모델링했다고 한다. 매장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과 커피 등의 후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로 나뉘져 있었다. 우리는 먼저 카페에서 담당자를 기다리기로 하고 에스프레소 한잔씩을 마셨다. 마시고 있는 동안 Cristo3의 실무책임자인 Sergio Vigliotti씨가 들어왔는데 상상하던 대로 KFC할아버지 같은 인상을 가진 넉넉한 인상을 가진 유머감각 있는 분이셨다. 잠시 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여자 분도 들어오셨는데 Risto3의 특성상 여성인력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직장의 문화로 인해 다수인 여성들이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우리는 식당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이동을 했다.

우리나라 식당으로 하면 자율식당 정도가 되는 식당인데 음식의 종류가 수백 가지 차려져 있고 음식을 선택하면 선택된 음식만큼의 계산을 하는 셀프식당이었다. 식당은 편리하게 음식의 구획이 나뉘져 있어 들어가면서 에피타이저를 고를 수 있고 찬음식, 더운음식, 파스타 / 리조또, 디저트 순으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테이블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2층과 3층을 통틀어 동시에 약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규모였다. 1층으로 이동해 물류창고로 이동을 했다. Risto3는 250개의 매장을 가진 규모가 큰 조합이었기 때문에 식당의 물류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일주일에 2번씩 지역의 친환경농축산물 / 파스타 등이 공급되고 대규모 직거래를 통하여 식재료의 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 보통 일반 음식점들은 스파게티의 경우 10유로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4~5유로면 스파게티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 소감

우리내로 치자면 노동자출자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 25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식당 협동조합이다.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노동자들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트렌토 협동조합을 관통하는 두 개를 이야기 하자면 원칙과 전문성이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이곳도 마찬가지다. 매장과 사람들의 인지도와 상관없이 식당에서 지켜야할 검사와 자격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식당은 맛이 아닌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먹은 전통음식 코스는 내 개인적인 입맛의 촌스러움으로 인해 맛의 진가를 알 수 없었다. 다만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내 온 음식과 유머를 잃지 않고 조합 설명을 해주시는 감독님과 대표님의 친절함에 음식 맛을 점쳐볼 뿐이다.

4) 2010년 6월 10일(목요일) 오후 2시~5시

■ 방문기관

Val di Gresta(농업 야채 협동조합)

■ 내용

1) 6월 10일 14시 출발 15시 Val di Gresta 도착 “출발에서 도착”

농업협동조합으로 가기위해 우리를 안내해줄 로베르타씨를 만나러 트렌토 연맹 사무실로 갔다. 그동안 우리를 안내해줄 플라비오씨는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연맹에서 나온 분이다. 젊은 여자 분이 나오셔서 한 시간 가량 이동할 것이라고 한다. 강을 따라 가다가 산자락을 끼고 올라간다. 산을 따라서 개간된 밭들을 끼고 우리나라 강원도 진부령만큼이나 굽이굽이 한참을 올라간다. 살짝 멀미가 난다. 밖의 풍경을 보니 우리가 가는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여기에서 농사짓고 있겠구나 싶다. 어쩌다 이런 산자락을 개간하기 시작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드디어 농업협동조합에 도착. 높은 곳인데도 길이 잘 닦여 있다. 건물들도 예쁘고, 농업 물품 파는 매장도 예쁘게 꾸며져 있다.

2) 협동조합 대표 반달로자씨와의 만남

여장군같이 씩씩한 여자 대표이다. 축구장 4배만한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웃는 모습이 선해 보인다. 발디 그라스타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현재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해 주신다. 힘이 있어 보이고 자긍심이 느껴진다. 농업협동조합의 유일한 여자대표라고 하신다. 웬지 그럴 만 하다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3) 협동조합 시설 견학

복잡한 시설은 없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느낌이다. 종묘보관소, 포장, 저울 등 매장에 친환경 경제품들은 크기나 모양이 개성이 있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인다. 상품성을 위해 억지로 꾸미는 과정이 없이 자연스럽다.

4) 헤어집

근처에 큰 호수가 있어서 농업환경이 좋다고 한다. 내심 그 호수가 가보고 싶다. 엄청나게 크고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맑다고 하는데... 산풍경은 오를 때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준다. 반달로자씨로부터 농사에 대해 듣고 나서 보니 다른 감회가 다르다. 어렵게 어려운 시절을 꾸려 밭을 개간한 사람들이 만든 풍경일 것이다. 농사일의 어려움에 국경이 있으랴!

■ 소감

정말 높은 동네 사시는 분들이다. 이분들 만큼은 꼭 협동을 해야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곳 해발 1,000m에 살고 있다. 처음에는 혼자하기 힘들어서 협동조합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함께 살기위해 협동조합을 키우고 발전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근과 감자에서 시작해 작물의 다양화와 친환경으로 조합의 수익구조를 개선시킨 조합원들의 고민들이 조합의 근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 2010년 6월 11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방문기관

제 115회 트렌트협동조합연맹 총회

■ 내용

총회는 연맹 건물의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2층까지 포함해서 약 3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다양한 협동조합의 대표들과 실무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총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소모임을 만들어 하고 있는 여자 중학생들 6명이 총회를 관람하며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연맹의 대표는 Diego Schelfi라는 분이었는데, 머리가 벗겨지고 덩치가 큰 온화한 분위기를 보이는 분이였다. 약 30분 정도 인사말을 하는데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현재의 유럽의 경제 위축 상황 속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준비해 온 글을 읽으며 주장하였다. 인상적인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경청을 한다는 것이고 어떤 참가자들은 형광펜으로 열심히 밑줄 그어가며 정독을 하고 있었다. 협동조합의 연합의 중요성, 조합의 민주주의, 믿음의 문제, 정보의 역할,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새로운 복지협동조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2012년은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다. 새롭게 하나 되어 움직이며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이 더욱 연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08년보다 2009년의 종합적으로 매출액이 저조함을 이야기하며 지역주의와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였다.

■ 소감

총회 일정을 확인하고 간 것은 아니었으나, 마침 트렌트의 마지막 일정 중 금요일에 연맹 총회가 있어 우연히 참여할 수 있었다. 국제적 총회가 되었다며 한국에서 온 우리를 소개시켜 주었다. 536개의 회원 단체와 약 24억 유로, 우리 원화로 3조원 6,000억이 2009년 말 현재 연맹 전체에서 매출한 금액이라고 했다.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나 주장을 참여한 인사들이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함께 로비에서 Rlsto3에서 마련한 뷔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총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6) 2010년 6월 14일(월요일) 오전 10시~12시

■ 방문기관

LEGA COOP 볼로냐 지부

■ 내용

아침 일찍 볼로냐의 시내로 들어오면서 멀리 보이는 고층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이탈리아에서는 5층 이상의 건물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층건물이 눈에 띄는 것은 당연했다. Legacoop을 찾아 주차를 하고 보니 우리가 멀리서 봤던 그 고층건물이 앞에 있었다. ‘협동조합의 수도’ 라고 불리 울 정도로 협동조합들이 잘 되는 것은 알았지만 Lega의 건물을 보는 순간 지역에서의 협동조합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건물은 전체 11층이었는데 전체를 Legacoop 볼로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볼로냐 지부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에밀리아로마냐주의 Legacoop이 사용을 하고 있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듯 경비가 삼엄했다. 협동조합의 규모가 크니까 대기업 사옥에 출입하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11층 꼭대기에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서 볼로냐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듣고 6층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해 커피를 마시고 인사를 나누었다. 사무실은 편리하게 방 하나에 1명이 일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고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트렌트에 비해 사무적이고 공식적이었다. 지역에서 협동조합에 일한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좋은 직장이었고 채용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마치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강한 자부심과 좋은 근무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 소감

처음 원주에서 연수준비하면서부터 듣고 자료로 읽었던 그 곳이다. 아마 볼로냐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아닐까 싶은 빌딩으로 들어간다. 레가 쿵 건물이다. 협동조합 건물이라고 하는 놀라움이 앞선다. 중세의 건물이 즐비한 곳에 현대식 빌딩 레가쿵이 생소함과 조화로움이 레가 쿵에 대한 인상이다. 모던한 건물모양 만 큼이나 브리핑하는 청년도 모던하다. 홍보담당으로서 깔끔하게 조합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어디를 가나 대접받는 에스프레소 한잔. 브리핑 내용은 조합의 역사와 현황들이 대부분이었다. 수직화되어 건조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레가 쿵 협동조합의 역사와 삶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것들과 직면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역사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볼로냐 시와 볼로냐 협동조합들을 상상해 볼 뿐이다.

7) 2010년 6월 14일(월요일) 오후 2시~5시

■ 방문기관

LA STRADA(노숙인 협동조합)

■ 내용

원주의 갈거리사랑촌이라는 복지기관에서 노숙인과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몇 년째 유지하고 있다. 주로 2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하며 노숙인과 저소득층 분들이 신용 유지 및 긴급한 생계유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주의 경우와 비슷한 것이란 생각을 하며 찾아갔다. 원주와 다른 점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가 우선이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스스로 운영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하나의 재활 코스는 6~8개월 걸리고, 처음 11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37명의 노숙인들이 볼로냐 시의 노숙인들에게 잠자리, 식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볼로냐 시에서 일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 이유는 이민자, 난민에게 사회복지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기 때문이란단.

여기도 자립을 위해서는 따로 신용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듯하다. 또한 라스트라와 비슷한 14개의 사회적 기업 연맹(SIC)로부터 일을 수주하고 가격 수준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시에 대응한다고 한다. 문제점으로는 Hera라는 사기업(볼로냐 시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자신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재하청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헤라로부터.... 그래서 시에 공공사업의 5%를 라스트라와 같은 협동조합에 달라고 5년 동안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한다.

■ 소감

정말 말이 생소한 이탈리아에서 그나마 친근한 이름의 협동조합. 영화 '길'을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냐고 물어보질 못했다. 아쉽게도 노숙인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영화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건물도 동네도 친숙한 느낌이다. 적당히 넓은 거리에 가로수들이 너무 깨끗하지 않아서 좋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사무실과 화장실! 한 쪽에 쌓아놓은 물건들! 무엇보다 우리와 얘기를 나눠주신 대표와 창립 때부터 계셨다는 분의 미소와 낯설지 않은 주름살이 반갑다.

협동조합의 운영이 이윤보다 보조에 의지하는 형편이라 시의 정책에 민감한 것도 우리네와 닮아 있었다. 협동조합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정책은 라스트라다 같은 협동조합의 앞날에 밝은 빛은 아닌 모양이다. 트론토같이 재정자립도 100%인 지자체와 다른 점이 아닌가 싶다. 주로 거리의 청소와 같은 일을 하는 협동조합의 일거리가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헤라 같은 자본주의식 업체에 밀린다. 레가 쿵의 도움을 물으니 자립이 우선이라고 한다.

8) 2010년 6월 15일(화요일)

■ 방문기관

CONAPI 협동조합- ALCE NERO 주식회사

■ 내용

1) 기관 방문

우리가 방문하기로 한 곳은 알체 네로인데 통역선생님 말씀으로는 코나피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어찌된 연유인지는 가보는 수 밖에 없다. 볼로냐 시외로 달리다 보니 코나피 간판이 보인다. 햇볕이 밝게 들어오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하얀 벽에 그려진 벽화들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다. 양봉을 시작으로 발전한 코나피와 파스타를 중심으로 성장한 알체네로가 합쳐서 지금의 협동조합이 되었다고 한다. 유통을 맡고 있는 알체네로와는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두 기관의 가까운 거리가 일을 풀어가는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은 아닐까. 알체네로 대표와 코나피 대표분들의 어울림에서 느껴진다. 양봉에서 시작한 코나피는 생산물이 다양해졌고 공정무역을 통해서도 생산품을 만들고 있었다. 친환경 꿀을 생산해서 일본에까지 수출한다고 한다. 한국에는 수출을 위해 방문했지만 친환경 인증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의 꿀을 반경 3키로 이내에 화학성분의 공장이나 큰 도로가 없는 곳에서 꿀을 생산한다고 한다. 이런 철저함은 “깨끗함”에 대한 그들의 철학에서도 드러난다. 생산과정에서 공저의 깨끗함과 사람과 사람사이의 지켜야할 도리의 깨끗함, 적절한 임금지급과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학대나 차별이 없는 것 등이 그러하다.

2) 꿀 생산공장

가공공장으로 들어갈 때는 하얀 옷과 하얀 모자를 쓰고 들어갔다. 방문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모양이다. 공정은 대부분 자동화 되어 있어 있다. 친환경 꿀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생산자들이 보내는 꿀 대부분을 이곳에서 가공한다고 한다. 들어온 꿀의 숙성과정부터 상표가 붙을 때까지의 공정들을 세세히 설명해 주신다. 설명하는 공장장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느껴진다. 한국의 양봉현실과 잠시 비교해본다. 짧은 지식이지만 많은 차이가 느껴진다.

3) 결론

생산공장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니 우리들을 위한 선물바구니가 놓여 있다. 사람들을 위해 개별 바구니에 넣어주셨다. 꿀, 잼, 과자와 알체네로 안내 책자와 열쇠고리 홍보물 등이 들어 있었다. 멀리서 온 방문객을 위한 마음 씬씀이가 고맙다. 하지만 한편으론 미래의 소비자를 위한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는 돌아오는 차안에서 꿀과 코나피와 알체네로의 발전적인 합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식회사로 전환한 알체네로의 지분 51%를 코나피가 갖고 있는 현재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알체네로를 통제하기 힘들어질 우려가 있는 미래에 대해. 아마도 미래에도 서로가 원칙과 신뢰를 통해 발전해 가고 있지 않을까.

■ 소감

처음에는 알체 네로라는 친환경매장을 섭외했는데, 알체 네로를 운영하는 상부 조직인 협동조합으로 안내를 하였다. 양봉생산자가 처음 시작하여 알체 네로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꿀 생산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었다. 잼도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산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 수출하기도 원한다며 우리에게 후한 접대를 해주었다.

9) 2010년 6월 15일(화요일) 오후 2시~5시

■ 방문기관

Lisanamento(주택협동조합)

■ 내용

1) 6월 15일 오후 14시 Lisanamento 도착

시내의 오래된 건물 안에 사무실이 있었다. 오래된 거물이란 하면 이곳에서는 보통 500년 이상은 되어 보인다. 건물바닥이 대리석이다. 트렌토나 볼로냐에서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다. 중세의 외관에 안은 어떨지,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서 협동조합 사무실까지 가는 길은 즐겁고 신기했다. 건물외관 만큼이나 안내된 회의실도 고풍스럽다. 처음 눈에 띄는 것이 건물 모형도! 역시 건축협동조합이다. 듣고 보니 처음으로 지은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100 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사는 그들의 모습이 한편 부럽다.

2) 협동조합 대표와 상임위원들과의 만남

15명의 상임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반에 가까운 분들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다. 환대받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들의 열정어린 모습이 감동스럽기 까지 하다. 대표를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동네아저씨같이 이야기에 끼어들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기도 하신다. 특히 리사나멘토의 역사나 사업부분에는 보충에 보충설명을 해주신다.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권위가 느껴지는 분들이다. 대표를 비롯한 상임위원분들의 각 각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 기술과 감리 등 건축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었다.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미팅일 수도 있었는데, 이런 진지함과 열정이라니 그들이 지은 집들에 대해 보지 않고도 신뢰감이 쌓인다.

3) 작은 파티

우리를 위해 이야기가 끝난 후 샴페인과 다과로 작은 파티를 열어 주었다. 샴페인과 과자, 음료 다 맛났지만 이런 그들의 마음이 더 맛깔스러운 것이 아닐까. 처음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냈던 돈 5리라, 백이십년 전 일인데 기념품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다. 기념패도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 쪽 대표에게 전달하신다.

4) 작은 파티

단열과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보다보니 우리와의 건축차이가 현저하게 느껴진다. 우리의 임대주택 현실은 어떠한가! 3인 기준의 집이라는데 24평은 되어 보인다. 공간 활용을 위해 화장실 문을 미닫이로 만든 것도 인상적이다. 외벽이 이렇게 두껍다니 창문은 당연히 이중창호! 그런데 창과 창 사이에 화분을 놓을 수 있다.(외벽이 그만큼 두껍다는 것) 웬지 유난스럽게 헤어짐이 아쉬운 방문이다. 아마도 한국 같으면 저녁 혹은 간단한 술이라도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리라!

■ 소감

한국에서의 집에 개념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협동조합이라고 생각되었다.(집을 주거의 목적이아니 자산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 주거시설을 확충하기위해 시작된 협동조합이 현재 까지도 조합원들의 주거시설 확충 및 에너지 절감 건축 등으로 발전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주택협동조합 이런 것이 한국에 생기면 집값이 많이 안정 되려나? 하는 생각들을 해 본다.

8. 연수 후 활동 평가

■ 연수활동 결과 평가

1) 예비 사회적 기업가로서 이번 연수를 통하여 확장된 개념으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좁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적 기업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사회적 기업을 준비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기에 이윤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 이윤 추구의 방법이 달라야 한다. 리스토3의 경험처럼 다른 인종, 민족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차별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윤만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준대거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참여에 차별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업의 발전이라는 것이 매출액의 성장만이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다. 즉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구성원의 인권, 삶의 질 향상, 자존감 형성 등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발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자신들이 이윤만을 남기려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발전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없다. 트렌트협동조합연맹의 100년이 넘는 협동의 경험은 그 지역을 재정자립도 100%라는 지역 순환적 경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2)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다. 한국의 협동조합은 그 발전의 과정이 이번 이탈리아 트렌토와 볼로냐의 협동조합과는 달라서 그 자체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은 필요에 의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이고 조합의 운영을 위한 협력적 경영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협동조합은 그렇게 성장해 오지 못했고, 약 25년 정도 된 생활협동조합의 역사가 이탈리아와 비슷한 발전을 한 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즉, 협동조합도 하나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협동적 방법으로 생산하며 제공하고 있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에만 맡긴 것도 아니고, 세금을 많이 걷어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었다.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스스로 만들고 유지하고 지역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연합하고 연대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을 광의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적 인정이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 민주주적 운영 요소를 갖춘다는 것, 공정한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 협동을 통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더 큰 이익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 등. 사회적 기업을 협의의 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인간 중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것인 틀로 바라보면서 연대해야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길게 보고 갈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의 지원과 컨소시엄의 연대성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많은 곳이 정부의 지원에 초기에 의존한다.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과정을 합의하고 극복하여

자리를 잡는 것이다. 연수 기간 동안 방문한 많은 협동조합이 스스로의 자립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컨소시엄의 힘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스스로의 자립을 우선하였다.

그렇기 위해서는 조합의 구성원(임원, 실무자, 봉사자, 활동가 등)이 그 조합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배경을 알아야 한다. 즉,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구성원이 공동의 지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소통을 중요하다. 또한 원주처럼 생협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있는 곳은 연대하여 공동의 가치를 나눈다면 우리의 실천이 외롭지 않음을 알기에 더 그 지향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기업은 자신들이 성장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축적할 수 있고 그 힘이 외부의 비슷한 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동질성을 확보하여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남은 문제는 트렌토와 볼로냐의 협동조합의 역사 발전 과정이 우리와는 다르기에 그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그들이 100년 동안 발전시킨 협동조합의, 연대의 경제학의 역사를 우리는 다른 분야가 그렇듯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만의 필요와 우리 안의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연수에 참가한 사람들이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 펼쳐짐의 핵심을 협동조합의 구성원,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또는 참여자)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그 협동의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기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도 우리 내부의 구성원의 힘이 무한함을 믿고 조금은 느리더라도 천천히 돌아가더라도 그 힘으로 가야 할 것이다.

9. 결론

■ 전체 평가

1)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는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협동조합 관련 법률이 통일돼 있지 않은데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틀 안에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제 3섹터 조직이자 비영리 또는 이익의 사회적 재투자라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에도 다른 영역으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Lega coop Bologna를 방문했을 때 안내자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게 이탈리아 정부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탈리아의 정부가 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의 범주로 포함하는 게 일관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은 이탈리아 의회가 1991년 제정한 법 381(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법에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실체가 탄생되게 됐는데 이 법은 □ 공동체의 일반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할 것 □ 회원은 노동자, 고객,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며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인력이 전체 50%를 초과하지 말 것 □ 민주적 관리원칙을 준수하며 1인 1표제를 채택할 것 □ 사회적 협동조합은 A Type(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B Type(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돕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자 전체 인력의 30% 이상이 취약계층일 것)으로 구분하며,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도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적 협동조합 법 안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 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과 동일한 그 이상의 대안 경제의 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내용(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서비스 수혜자 및 근로자 등 이해 관계자의 참여, 조직형태 중 하나가 생활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내용과 협동조합의 7대 원칙(민주적 관리 원칙 등)이 혼재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 Type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특징에 ‘사회적 경제 영역’을 강화한 측면이 있고 B Type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기업’을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 결국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 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것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욕구 충족이라는 전통적인 모델을 탈피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연대, 이윤이 아닌 사용가치,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소유,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망)을 강조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보자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분리해서 각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사회적 경제영역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네트워크화 해 영역을 키우고 목적한 바를 이룰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할 수 있다.

특히 원주와 같이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거나,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을 발전 및 확대를 지원하는 지역에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행복한 시루봉과 노나메기 등 원주지역 신규 사회적 기업이 조직 형태를 협동조합 방식을 택하고 있고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이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상황에

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틀 안에서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라 할 수 있다.

2) 연수 목적과 사례, 시사점

▷ 협동조합 간 협동: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컨소시엄 현황과 단위 협동조합과의 연계성 파악

-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3단계: 단위 협동조합 - 분야별 컨소시엄 - 연맹
- 트렌토 지방의 경우에는 536개의 단위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이중 소비자 협동조합이 79개, 농업 관련 협동조합이 92개, 신용협동조합이 46개, 노동·서비스 및 주택 협동조합이 298개, 관련 기관 및 기업이 21개 존재하며 각 분야별 컨소시엄과 1개의 연맹이 존재함
-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은 이탈리아 Lega coop 회원으로 가입
- 컨소시엄의 주인은 각 단위 협동조합의 조합장(이사장)이며 의사결정에 참여함
- 컨소시엄이나 연맹 결성 자체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소비자 협동조합의 연맹인 SAIT의 예)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창립 및 운영에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에서의 사회 경제 영역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컨소시엄 및 연맹의 설립 목적: 경제적 만족과 사회·문화적 연대, 영혼의 섬 및 공동체의 창조성 지향, 믿음을 통해 하루하루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의 발전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단체 확대(2010년 20여개 단체로 확대될 전망)에 따른 분야별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체계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례
- 특히 각 단위 COOP 매출액의 3%는 협동조합개발기금의 형태로 모여져 협동조합 연구 등에 쓰고 다른 잉여는 COOPERFIDE S. C.(협동조합 잉여기금과 정부의 사회적 기금을 모은 곳으로 은행(신용협동조합)이 조합에 빌려 준 돈을 보증하는 기관) 등으로 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설치를 추진하는 ‘협동기금’의 재원 마련 및 운영 방법 등을 고민할 수 있는 사례: 회비는 운영비와 연구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기금은 협동조합 창립 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등, 제도개선을 통한 자치단체 차원의 기금조성과 접목 등

▷ 지역사회 기여: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역할 견학 및 지역사회에서의 기능 파악

- 협동조합 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재화 및 서비스 창출의 목적, 이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 Flavio Beozzo(Ufficio studi e intercooperazione): 우리는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향한다.
- 트렌토 지역 협동조합 종사자 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재정자립도 100% 달성
- 트렌토 지역 사회적 영역 협동조합(어려운 사람을 위한 일자리 1천800개를 창출하고 1천200개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천명이 수혜를 받고 있음, 1천명의 자원봉사자)
-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재화와 일자리의 폭발적 증가(CONAPI-ALCE NERO의 예)

- Legacoop의 지향이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이탈리아의 성장', 그만큼 재화 및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있어 협동조합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음

▷ 협동 일꾼 및 사회적 기업가의 재생산 구조: 공동의 비전을 갖는 협동조합 일꾼의 지역 내 재생산 구조 파악

- 일자리 창출 자체가 협동일꾼 및 사회적 기업가 재생산 구조
- 컨소시엄과 연맹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동조합 연구 작업을 통한 협동조합의 미래비전 생산
-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각 단위조합의 확일화라 느껴질 만큼의 통일성
- 운동적 성격보다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커다란 양식: 협동조합의 바다
- 트렌토: 1만 명에 달하는 학생이 협동조합을 공부하고 있음

▷ 협동조합과 정당, 노동조합, 대학, 지자체, 국가와의 연계성: 한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

- 지자체는 사회적 기금이 COOPERFIDE S. C.에서 협동조합의 잉여와 함께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쓰여 지고 있음
- 연맹차원의 주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자치단체 차원의 공유재산 대부 및 무상증여(초기) → 생협법 공유재산 대부 조항
- 지방정부와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협동조합 발전을 논의 함
- 볼로냐 대학에서 2개의 협동조합 전문 과정 운영
- 정당적 색채의 약화: 삶의 문제 등

▷ 도출되는 과제 - 간략 메모 - 원주를 중심으로

- 협동조합 정신의 대중적 공유: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운영 및 협동조합 정신의 대중적 공유와 미래비전 제시, 제도화되지 않은 자기 원칙의 설립과 준수
- 선순환 구조와 사회적 경제 블록 구축을 위한 상호부조 시스템 확립: 사회적 경제 블록의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화
- 영역확대를 위한 노력: 네트워크 내 회원단체 확대와 영역별 구축
- 사회적 경제 지표를 통한 네트워크의 가능성과 규모 파악(인적 능력과 인간적 연대포함): 사회적 경제 지표를 통한 역량 파악 및 홍보, 제도개선에 활용
- 역사와 브랜드 홍보를 위한 체계 확립: 역사와 현재 역량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가치 창출 및 홍보, 축제 및 세미나, 포럼 개최
- 협동가치를 통한 발전계획 및 원주의 미래상 정립: 협동의 도시 트렌토 등의 방식으로 원주의 미래상 정립
- 정부 /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및 투쟁(제도 및 지원): 생협법 개정 및 조례 제정(사회적 경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기금조성 등
- 국제·국내적 연대와 연구: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한 가치 및 제도, 시스템의 학습
- 주민 삶을 책임지는 새 영역 구축: 새로운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창립 지원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 확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협동기금 설치 및 운영
- 매체의 안정적 발행과 내용의 대중화: 원주의 사는 즐거움 독립화 및 우리 매체화
- 사회적 경제 일꾼 재생산을 위한 비전의 공유와 교육의 장 마련: 미래 비전을 통한 재생산 및 지속적인 만남과 교육의 장 마련
- 네트워크의 서비스 프로그램 정착 및 안정화, 체계화: 트워크 강화 및 서비스 프로그램 창조
- 한국식 전형 창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 운동기관, 협동조합 형 사회적 기업 등
- 민주주의 확립: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민주주의, 다민족 구성원에 대한 민주주의
-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기여: 시민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 주민조직